

## 맥도날드 소개하는 '최강록 셰프'부터 르무통 신은 '임윤아'까지[유통가 새 얼굴]

등록 2026.05.10 09:00:00



[서울=뉴시스]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와 '와사비 슈비 버거' 2종의 캠페인 모델 최강록 셰프(사진=한국맥도날드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상운 기자 = 식품부터 뷰티, 패션업계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 한국맥도날드, 신메뉴 '와사비 버거' 2종 모델로 최강록 셰프 내세워

한국맥도날드는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와 '와사비 슈비 버거' 2종을 출시하며 최강록 셰프를 캠페인 모델로 발탁했다.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는 바삭하게 튀겨낸 게살 크림 크로켓에 와사비 타르타르 소스를 더해 와사비의 알싸한 풍미와 깔끔한 뒷맛을 구현했다.

'와사비 슈비 버거'는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 슈비 버거를 재해석한 메뉴다. 탱글한 통새우 패티와 100% 순쇠고기 패티에 와사비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였다.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최강록 셰프는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 셰프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게살 크림 크로켓' 레시피를 직접 선보인 경험이 있어 이번 신메뉴 캠페인 모델로서 의미를

더한다.

---

## 앳홈 '툼(THOME)',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모델에 카즈하 발탁

---



[서울=뉴시스] 톼 뷰티 디바이스 '투앤티업' 전속모델 르세라핌 카즈하(사진=앳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앳홈의 프라이빗 에스테틱 브랜드 '툼(THOME)'은 르세라핌(LE SSERAFIM)의 카즈하를 신규 뷰티 디바이스 모델로 발탁하며 20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툼은 저자극 설계를 적용한 20대를 위한 첫 뷰티 디바이스 '투앤티업(Twenty up)'의 모델로 카즈하를 선정했다.

자신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카즈하의 이미지가 스스로 아름다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기주도적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하는 톼의 브랜드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투앤티업은 물방울 초음파 기술을 적용해 20대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인 트러블과 이른바 화갈떡 케어에 초점을 맞췄다.

피부 진정 및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진정 모드'와 메이크업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이는 '데일리 모드'를 지원한다.

툼은 카즈하와 함께한 비주얼 화보, 비하인드 영상, 옥외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에 나설 계획이다.

통 브랜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카즈하와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통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즈하가 보여주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아름다움이 투엔티업과 만나 20대 고객층의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 르무통, 브랜드 모델로 배우 임윤아 발탁... '편안함' 내세운다

---



[서울=뉴시스] 르무통, 브랜드 모델로 배우 임윤아 발탁(사진=르무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은 브랜드 모델로 배우 임윤아를 발탁했다.

이번 모델 기용은 르무통이 지난 10년간 지켜온 '편안함'의 가치와 브랜드 철학을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윤아는 특유의 밝고 편안한 에너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르무통은 자사가 지향하는 '편안함'이라는 브랜드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르무통은 이번 모델 발탁을 자사 핵심 가치인 편안함을 대중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그간 쌓아온 제품력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믿고 선택하는 '국민 신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략이다.

르무통 관계자는 "임윤아가 지닌 밝고 편안한 에너지가 르무통과 만나 기분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델 임윤아와 함께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객들의 일상에 편안한 온기를 더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